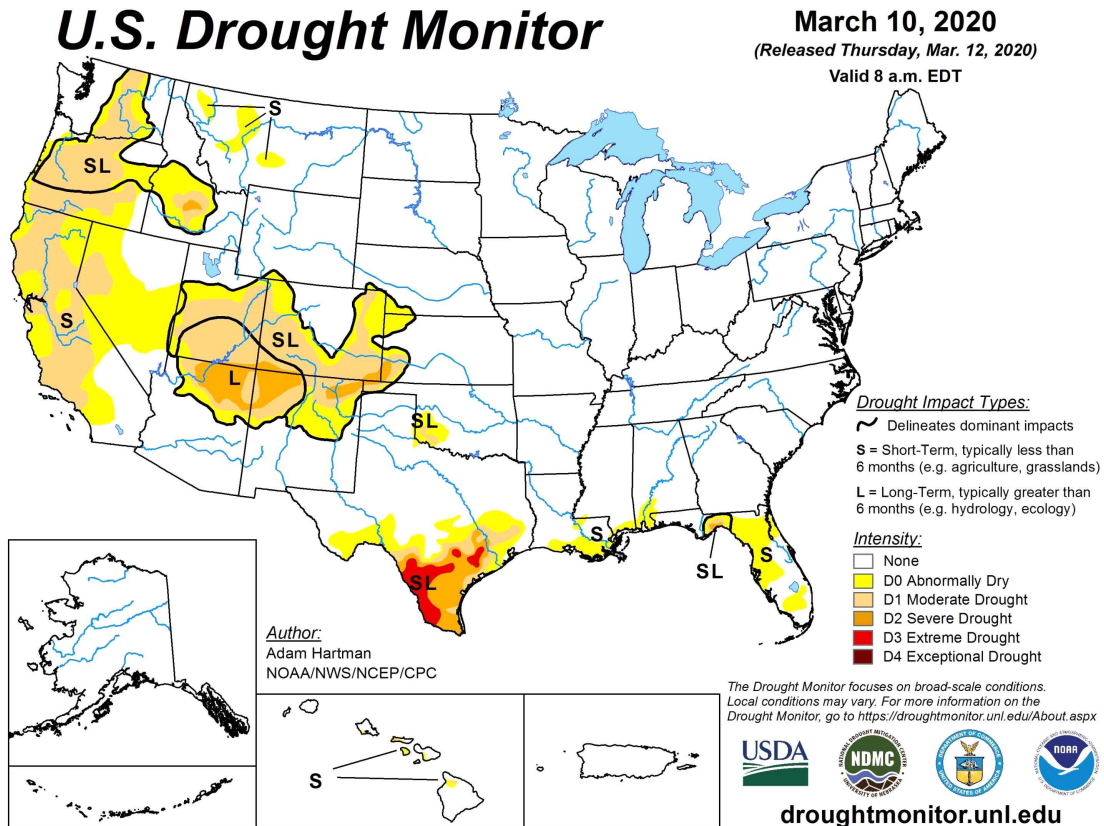


3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11)

□ 미국 기후 현황(3/8~3/14)

남서부에서 북동부 지역으로 활동적인 폭풍이 이동하면서 광범위한 강수가 발생했는데 특히 남캘리포니아와 사막 남서부 일부에서 심했다. 그러나 폭풍이 강해지기 시작한 주말까지는 상당량의 비와 눈이 대부분 북캘리포니아를 비켜갔다. 북서부에서는 주말 강수도 발달하여 더 차가운 공기가 급증했다. 그 결과 북서쪽 내륙 일부를 포함해서 로키 산맥과 고 평원의 북부 지역에 상당한 눈이 쌓였다. 더 동쪽으로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까지 폭우 기간 (지역적으로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이 있어서 봄 야외 작업 준비에 앞서서 축축한 조건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서부 위쪽 전역은 강수량이 더 약했다. 다른 곳을 보면, 덥 사우스는 전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조건이 지속되어 재식활동과 기타 봄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하지만 남텍사스에서부터 플로리다 반도까지 다양한 정도로 발생한 건조로 인해 관개 수요가 상승했고 출현 중인 작물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양상은 적어도 평원 북부와 북서부를 가로질러 더 차가운 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나라 전체적으로 계속 지배적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덥 사우스 전역과 오대호 아래쪽에서부터 북동부까지 평년보다 10~15° F 높았다. 반면,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몬테나 주의 고 평원까지 여러 곳에서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3/8~3/14)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 전역에서 축축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대륙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겨울 작물의 발달 속도가 정상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했다.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대서양 폭풍으로 대륙의 중부와 북부에는 또 한 차례 10~50 mm의 비를 내렸고 아일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더 강한 비 (50 mm 이상)가 보고되었다. 1차 밀과 유채 지역에 걸쳐 가뭄 우려는 없었으며 프랑스에서 폴란드까지 60일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0~250%였다. 지난 주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린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날씨는 다시 건조해졌는데 영양 생장 중인 이 지역의 밀과 보리에 대한 식생 건강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른 철 전망은 이탈리아는 양호, 북스페인에 우수로 나타났다. 더 동쪽은, 발칸 반도 남부에 내린 중간 내지 폭우 (10~50 mm)가 영양 생장 중인 밀과 유채에서 계속되던 수분 부족을 완화시켜주었으며, 발칸 반도 북부와 주변은 맑은 하늘로 겨울 작물 발달을 촉진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으며 겨울 작물들은 평균보다 2~4주 앞서서 발달하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이 겨울 밀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서 평균보다 최대 한 달 앞서 발달하고 있었다. 주요 겨울 밀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 C를 초과하는 (지역적으로는 14° C 정도로 높게) 이상 고온을 보여 작물 발달 속도는 아주 빨랐다. 겨울 밀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한 달 앞서서 분얼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는 평년보다 거의 3주 앞서 있었다. 일단 작물이 분얼기에 도달하게 되면 생식기 중 온도 감수성이 최고로 상승하여 밀은 끝마름과 동해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밀 지역에서 지난 60일간 강수량이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봄 성장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 동아시아: 북중국 평야에서 주초에 가볍게 내린 소나기 (10 mm 미만)가 밀의 녹화에 유익했던 한편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일관되게 강우가 발생했다 (양쯔 계곡에는 25~50 mm, 남동부에는 100 mm 이상). 양쯔 계곡의 축축한 날씨가 영양 생장 중인 유채를 위해서 토양 수분을 적당하게 유지시킨 한편 남동부에 내린 강우는 이른 벼의 활착에 도움이 되는 수분 공급량을 상승시켰다. 또한, 동부 재배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 C 높아져서 작물의 발달이 보통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 호주: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5~25 mm)가 퀸즐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 수분 공급량을 더욱 늘려서 미성숙 면화와 수수에게 잠재적 혜택을 주고 있었다. 많은 여름 작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거나 성숙에 다가가고 있었으나 축축한 날씨 때문에 지역의 건조 작업이나 수확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였다. 최근에 내린 비가 알맞게도 주로 가뭄에 시달리며 재배기를 보냈던 성숙 중인 몇몇 작물들의 품질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수 있다. 축축한 날씨가 가뭄에 피해를 입은 많은 여름 작물들에게는 시기가 맞지 않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조건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는 환영 받았다. 대개 파종은 4월 중순부터 6월을 지나기까지 한다. 더 먼 남쪽, 뉴 사우스 웨일즈의 중부와 남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다. 호주 동부 지역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 C 낮았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에서 이전에 건조했던 곳들은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미성숙 옥수수과 콩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수분 상승을 가져왔다. 가장 심한 비 (50~100 mm 이상)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서부와 라 팜파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다. 최소 10 mm가 넘는 총 강수량이 바깥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로 연장되었고 북쪽으로는 코르도바, 산타페, 에트레 리오스의 최남단 구역들에까지 이르렀다.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낮 최고 기온이 낮은-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여 계절적 냉각이 일어나야만 하는 때에 작물 수분 수요를 높게 유지했고 최근의 여름 온난화 추세를 유지했다.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 날씨보다 더운 날씨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6° C 이상 높았고 먼 북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 C에 도달)가 더 먼 북쪽으로 많이 퍼졌지만, 면화 및 기타 여름 밭 작물들의 성숙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는 3월 12일 기준으로 47% 수확되어 작년보다 9% 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수확은 지난 재배기의 같은 시점의 21% 대비 14% 완료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의 상당 부분에서 계절을 벗어난 따뜻함과 건조함이 우세하여 여름철 주요 작물들의 건조 및 수확을 당기는 효과가 있었지만 3월 강우로 수혜를 받는 2차 작물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제한하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남부와 상 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대체로 5 mm 이하). 또한 주간 최고 기온이 여러 장소에서 며칠 동안 중간-높은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여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와 콩의 수확이 3월 9일 기준으로 각각 57%, 68% 완결되었다. 또한, 2차 작물 옥수수는 84% 파종되었고 대체로 영양생장기에 있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옥수수가 3월 12일 기준으로 57% 수확되었고 작물의 나머지는 종실비대기와 성숙기 사이에 있었다. 한편, 콩은 8% 수확되었고 작물의 상당 부분이 (84%)은 여전히 개화기-종실비대기에 있었다. 더 북쪽은 적당한 소나기 (총 강수량이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마토 그로소 북부와 내륙 북동부 전역 (미나스 게라이스 북부에서부터 마란하오까지)의 옥수수와 면화에게 대체로 양호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마토 그로소의 콩은 3월 6일 기준으로 97% 수확되었고 콩은 99% 파종되었다.